

씨을에 대한 해석

‘씨을’이란 말은 백성, 즉 하늘에 머리를 둔 민초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씨을여성회는 가장 낮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people의 뜻인데, 우리 자신을 모든 역사적 죄악에서 해방 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스스로 닦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을』은 아래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글자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o」은 극대(極大)혹은 초월적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은 극소 혹은 내재적인 하늘, 곧 자아를 의미합니다.
「ㄹ」은 활동하며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 문화 사랑

김 민 서

메콩 강, 양쯔 강 현해탄을 건너
 물설고 낮선 한류열풍에 몸을 싣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를 뒤로하고
 신랑을 따라 20세의 꽃 같은 신부
 고추보다 맵다는 강남스타일 시집살이
 사랑받는 한국 며느리 수업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한국 음식 맛들이기
 제2외국어 배우고 또 배워도 어려워
 물 흐르듯이 긴 시간이 지나
 아기 낳아 키우고
 한국아줌마로 젠틸하게 사노라면
 모국어 선생님 되어 자랑스러운
 세계화 시대에 우뚝 선 신여성이어라
 모두가 하나 된 다문화 세계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 윤종설 씨울 여성회 이사

2013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새로운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

걸어온 날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날을 다시 한 번 계획하고 성취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씨울여성회는 설레는 열정으로 한 여름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씨울여성회는 남은 올해의 반을 더욱 알차게 계획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고자 애쓰려고 합니다.

푸르른 산과 맑은 하천으로 아름다운 이 곳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씨울여성회와 함께 동행한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여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울고 웃으며 보람을 느낀 씨울여성회는 저의 인생에 한 획을 그어준 최고의 단체였습니다.

행복한 여성, 행복한 지역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담과 교육, 체험,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차별,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인권회복을 추구하는 씨울여성회 연대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뿌듯하고 맘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며 가슴 벅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가정의 활동을 함께하며 그들의 순수함과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로 좋은 인생의 친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씨울여성회가 아름다움을 꿈꾸는 정말 대단한 단체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모두가 함께 나서서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마음의 치유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에 방문하며 상담해주고, 열악한 가정환경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뒤에서 소리 없이 가구와 보일러를 놓아 주시는 류소장님의 모습의 보며, 보일러보다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을 때입니다. 이를 통해 이때까지나 자신을 먼저 알고, 이기적이었던 저를 반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씨올여성회는 “여성의 힘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과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 소외된 이웃들의 평안을 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모아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꿈이 없는 곳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씨올여성회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하겠습니다.

계획한 것을 모두 완벽히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저 자신도 최선을 다 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또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윤 종 설 이사 올림

Contents

여는마당

01. 〈詩〉 다문화 사랑 시인 **김민서** 3
02. 〈인사글〉 새로운 시작을 알려며... **윤종철** 씨을여성회 이사 4

씨을마당

03. 사무국
- 〈기획글〉 성범죄 신고죄 폐지와 반성폭력 운동 **류복연** 성폭력상담소 소장 8
- 작은 씨을이 되어 **임복희** 성교육전문강사 12
-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제1호의 회로애락 **김만복** 상담원 13
- 사회복지실습 후기 I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첫발’ **김혜영** 실습생 14
- 사회복지실습 후기 II ‘내 주변 어려운사람의 빛이 되고자’ **전문경** 실습생 15
- 〈사무국 활동〉 편집부 16
04. 성폭력 상담소
-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편집부 22
- 2013년 상반기 상담통계 편집부 23
- ‘나도 성교육전문가’ **김남순** 제12기성교육전문강사교육생 26
- ‘췌! 성교육 수업 중’ 체험식 성교육을 받고서 초등학생 27
- 나에게 있어서 인형극 공연은? **김태식** 인형극 단원 30
- 인형극 공연 ‘내 몸은 소중한’ 효과 **박상준** 광주경찰서아동여성계 부장 31
- 〈상담소 활동〉 32
05.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 한국말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팜터린후예(베)**한국어교육생 38
- 무지개빛 자조모임 소개 **노라(필)**원어민영어학원장 39

씨울여성회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일깨웁니다

(사) 씨울여성회

세계인의 날 축제에서 '당당히 1등을 거머쥘다.'	당티즈영(베)보육교사	40
이주 여성이 촬영한 영화 소개 '이주여성공감을 담다.'		41
〈센터 활동〉		42

참여마당

06. 씨울여성회 회원소식	48
07. 서가산책	50
08. 2013년 하반기 사업 · 교육 · 행사계획	51
09. 2013년 상반기 후원자현황	56
10. 씨울여성회 하는 일	58
11. 회원가입	60
12. 약 도	61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반성폭력 운동

류 복 연 (성폭력상담소장)

해마다 증가되고 흉포화되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법률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정하여 지난 20년동안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전면폐지되는 의미있는 날이 2013년 6월 19일이다. 이 날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한 걸음 진전되었으며,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한 층 일반화되는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21세기 초 여성부가 들어서면서 전국곳곳에 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하는 시점에 우리지역 광주에도 처음으로 본회 부설기관으로 성폭력상담소가 송정동에 문을 열었다. ‘성폭력’이라는 말을 하고, 듣기 불편하던 단어, 성폭력이 난무하던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 가해를 했는지 명확히 구분 못하던 시기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된다.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2008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김수철, 김길태, 조두순사건, 통영시, 나주시 등 전국 곳곳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주요 뉴스로 등장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불안함이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 지역 또한 2010년 7월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광주A초등학교 담임K교사 성폭력 사건이 언론(MBC)에 보도되면서 아동, 여성 폭력 피해방지 및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폭력 범죄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피해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가 진행해왔던 그동안의 법이 개정되어 피해당사자 뿐 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 폐지’가 6월 19일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변화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하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법적 제도들을 활용합니다.

- 6월 19일 부터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경찰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성폭력 피해 신고시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 안내를 요청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합니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나의 담당수사관의 소속을 확인하여 전담 수사관에게 수사 받을 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케어팀)이 배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 및 모든 장애인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생략된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로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은 물론 수사동행등 사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의료비 지원이나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긴급 의료 처치 및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 '1366' 번호는 이와같은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셋. 수사재판과정 2차 피해와 가해자(측)의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근 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합니다.
- 만약 나의 사건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과정에서 나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알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측의 (감형을 위한) 내 의사에 반하는 합의 유도가 계속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관에게(기소 후 1심 선고 전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넷.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고민할 때 주변인은 먼저 당사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수사관 대면, 가해자의 보복, 주변의 반응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함께 대응을 모색해야합니다.

다섯. 나의 성폭력 피해를 사건화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만 망설여진다면 인근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성폭력 이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만 신고는 두렵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신고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차근차근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기 보다 인근 지역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출처-한국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다음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의 법적근거가 지역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층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되었다.

정부는 청소년의 성폭력예방을 위해 교과서를 개발하여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한다. 본 상담소는 개소하던 해부터 광주시 지원을 받아 9개초등학교 약 1,000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 아동, 청소년 대상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폭력예방교육이 강의식 전달교육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체험 위주교육을 지향한다는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유는 지역에서 십년 넘게 아동,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 상담소 성폭력상담통계 495건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415건, 가해 청소년은 223건 결과였다. 보다 심각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실태는 청소년의 가해 유형이 동급생과 선후배간에 발생한 건수가 495건 중 105건이었으며, 공범에 스마트폰에 의한 성범죄로 그동안 성폭력예방 교육 시스템의 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2년부터 성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모임(성교육전문강사모임)을 명칭부터 '성교육전문강사연구반'으로 바꿔 대상별 맞춤형, 체험식 교육을 연구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 손인형극 공연'을 탈인형극 공연을 준비하고, 찾아가는 성교육체험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의식 전달식의 교수법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체험식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면서 참여자도 진행자도 새로운 시도에 흥미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어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6월 19일 시행된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성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이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고 성인들의 왜곡된 성문화와 성고정관념을 변화할수 있는 원년이라 할수 있다. 올해 법에 근거하여 성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이 전국 10곳이 선정되어 약 7만명 성인이 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 남부 소재 본 상담소가 서울과 같은 만명 대상 교육을 진행 할수 있는 지역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남부 12개시 성인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종전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정부 공공기관에 연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 왜곡된 성문화, 성차별로 인권침해이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위주보다 성교육, 성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과 성평등한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많은 변화와 법체계의 정비의 재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는 증가되고 저연령화되고 있다. 이런 우리 사회문제를 6월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잘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친고죄폐지에 따른 기소를 증가와 성범죄 감소 뿐 만 아니라 피해자지원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피해자와 형사합의하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해자측에 신변노출에 따른 무차별한 접근에 2차피해가 속출했고, 성범죄에 형사합의가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무수한 판례들이 성범죄 감소와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 알코올로 인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배제된 것처럼 형사합의에 따른 양형기준의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성교육, 성폭력예방에 대한 성인식 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학교에 점차 보급한다는 정부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성인식 성가치관 전환교육이 여성적 시각이 반영된 교과과정인길 바라고, 아쉬운점은 성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으로 태어나면서 받아야 할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 포괄적이기 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에만 중점을 둔 단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사회 왜곡되고 고정화된 성인식, 성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단초로 성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이 의무화(공공기관)되고 비의무대상 성인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점이다.

이에 본 상담소도 그동안 지역에서 성인 대상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하반기 경기도 남부 만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이 사업은 경기남부 12개시 15개성폭력상담소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단체와 협력하여 경기 남부 전 지역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평등한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만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작은 씨앗이 되어~~

임 복 희 (성교육전문강사)

뽕망뽕망한 눈들이 나를 바라본다. 1학년 교실이다.

“X인자하고 Y인자가 만나서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여자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태어날때 여자, 남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요.”

“네,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학교를 가든 ‘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도는 참 편차가 심하다.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이 가르쳐 주셨든, 자신이 궁금해서 찾아보든, 정말 지식적인 부분이 충만하게 갖춰진 아이들도 있고, 그냥 백지상태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래서 생각도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골고루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성’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언제나 마음만 앞선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특히나 요즘에는 일선에서의 성교육이 ‘성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해서 더욱 그렇다. 현실의 세태를 반영하는 듯해서 슬프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없이 변죽만 울리다 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내서 살펴볼 수 없는 우리 삶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의 ‘성’을 이야기 해 주고 싶은데, 그래야 우리 모두 아름답고 당당하고 행복한 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성별과 상관없이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맺어가는 관계가 참 진실된 인간관계이고 ‘살만한 그래서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 ‘성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며,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지식을 다져주고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알려주고, 생각이 잘 정리된 아이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

이다. 배우고 익히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기가 거듭될수록 아이들과 교감하는 마음이 커갈수록, 몸과 마음의 지침이 회복되어짐을 느낀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차근차근히 내려앉은 좋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뻗어 꽃을 피울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해 본다. 그렇게 열매가 익어가는 날, 그 열매가 많아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지금 나는 열심히 그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



▲ 광수중 성교육 마치고... 임복희강사(오른쪽 두 번째)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제1호의 희로애락

김 만 복 (씨얼 여성회 상담원)

2012년 12월 방통대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이튿날, 나는 씨얼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 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사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시간이 좀 있으니 사무실의 일을 좀 배우고 싶어서 씨얼여성회에 찾아갔다. 소장님이랑 국장님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다.

때마침 연말이라 그렇게 바쁘지 않았고 직원도 아니어서 일도 그렇게 힘든 것을 안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서 너무 좋았다. 그냥 천천히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 나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으로 일하고 싶으냐고. 워낙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전화도 잘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컴맹보다는 조금 나은 레벨에 어떻게 일을 할까 고민이 많았다. 그때 소장님과 국장님의 많은 격려의 말씀 덕분에 함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울 창신역에서 힘든 12일의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수료하고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의 생각이랑 많이 달랐다.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할 줄 알았는데 소장님과 국장님은 아예 칼 퇴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 다 일벌레였다. 저보다도 더 심한 일벌레였다. 그리고 컴맹에 가까운 내가 여러 서식을 만들어야 했고 또 회계의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무엇인지, 관항목이 무엇인지, 심지어 인터넷뱅킹도 전혀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회계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장도 왜 그렇게 많은지, 결제코드도 이사님인지, 센터장님인지, 소장님인지 자주 헷갈려 A4용지도 많이 낭비했다. 그러다 머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너무 아팠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아픔이었다. 또 항상 긴장하다 보니 얼굴 표정도 안 좋았고 과연 이 일을 해야 할까 말까하는 생각도 자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워낙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한편은 왜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티가 안 나고 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제가 짧은 시간에 닥치는 대로 일을 빨리 마스트를 하지 못한 자신에서 온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이다(항상 하고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을 추구하는 저한테 작지 않은 스트레스였다). 그래도 엄격하지만 일을 빨리 배우도록 도와주신 소장님 및 항상 물어볼 때마다 자기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빨리 저의 옆에 달려온 국장님 덕분에 일을 조금조금씩 익혀갔다.

지금도 여전히 꼼꼼한 성격 탓에 스피드는 많이 늘지 못했지만 일을 하다보니 나름대로 조금조금씩 요령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또 닥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해결방법도 찾다 보니 마음도 조금 편해졌다. 또 이주여성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통번역을 해 주고 좋은 프로그램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리고 상담과 격려 및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한국생활에 적응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한 지 벌써 반년이 되었다. 그 동안의 희로애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류복연 소장님과 김영숙 국장님 및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첫발

김 혜 영 (개신대 대학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 실습생)

대부분의 실습생이 많이 실습하는 기관이 아닌 다소 생소한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 자료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막상 첫날에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주어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실습 첫날을 시작하였다. 사무국, 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

검증된 요리책을 검색하여 “이민자를 위한 쉬운 반찬 만들기” 워드작업(갈비찜, 잡채, 모듬전, 해물탕, 불고기-재료와 만드는 법)을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니 더욱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하게 되었고, 한국 사람인 나도 잘 만들지 못하는 요리도 있었지만, 문화체험 교실을 통해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첫날 오후에는 소장님과 초월파출소를 방문해 관내의 성폭력에 대해 경찰관과 상의를 하시는 모습에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직접 신경써주시는 기관이라 생각되었다. 피해자를 위해 쉼터 연결과 병원 치료비 지원 등 파출소의 작은 관심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파출소의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의 주 업무 중의 하나인 한글교육 시간에 보육활동을 하였다. 대부분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이주여성이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이를 데려와 같이 공부하거나 낮가림이 심하지 않은 아이는 직원들과 실습생들이 돌봐주며, 한글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타국으로 결혼을 와 제일 문제점인 언어로 인해 힘든 이주여성들이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실습생으로서 뿌듯하기도 하였고, 나름 신경쓴 시설이긴 하지만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조금 심심한 센터이기도 하였다. 센터에 많은 후원자가 생겨 큰 아이들을 위한 TV와 컴퓨터 등 놀잇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다.

지역 내 후원물품을 주는 곳이 여러 곳 있어 푸드뱅크에서 후원물품을 받아와 이주여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여러 번 푸드뱅크를 방문했다. 박스를 나르는 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후원물품을 받아가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센터 직원들은 더 많은 물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이리저리 물품을 나누고, 신경쓰시는 모습에 감동하였다. 또 매주 화요일 성폭력예방 인형극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재미있게 공연하는 모임에 참관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시나리오며 대사녹음, 인형컨셉 등을 논의 하시고 매주 모여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보여주기 위해 중년 여성분들이 모여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 사회복지실습을 하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성폭력피해자 3차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의 연기로 인해 참관은 하지 못하였다. 상담하고, 신고에서 끝나지 않고, 피의자의 법적 처리며, 차상위계층 피해자의 생활비 지원 등을 신경쓰시는 기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몸이 여러 개 여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의 빛이 되고자...

전 문 경 (사회복지실습생)

이주 여성과 성폭력피해자가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과 교육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씨얼여성회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사회복지 실습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열의를 보았으며 너무 많은 일과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 여성을 위한 한글 교육과 여러 가지 정보와 혜택을 주는 일, 장애인 학교와 일반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성폭력예방교육과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등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문서 작업과 홍보 등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글 교육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그분들의 힘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후원물품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공부하고 나누어 주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직접 후원물품을 운송하고 옮기고 나누는 일이 보람되었습니다.

이곳 씨얼여성회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주 여성들의 생활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보았으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여성분들에게 짧은 기간 도움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의 도움과 자립할때까지의 후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게 힘들었지만 보람된 실습기간이었습니다.



▲ 창립11주년 기념과 사랑·생명·평화·나눔 일일차집(문화웨딩컨벤션홀 5월 31일)



▲ 제11차 정기총회(1월31일)

사무국 활동

● 사무국 조직활동

제 11차 정기총회

(사) 씨울여성회 창립11주년기념과 사랑·생명·평화·나눔 일일차집

● 사무국 연대활동

경기여성 연대활동

광주여성 연대활동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사무국 조직활동

■ 제 11차 씨을여성회 정기총회

제 11차 씨을여성회 정기총회는 1월 31일(목, 오후4시~6시) 씨을여성회 교육관에서 김광휘이사장 사회로 27명 회원 참석과 19명 회원위임에 성수보고 받고, 정족수 확인으로 김광휘이사장이 총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2012년 사업, 결산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씨을여성회 신임 박혜영, 정인숙 이사 승인,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로 명칭변경, 성명옥센터장 퇴임으로 신임센터장은 이민자 지원과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인숙 이사가 비상대책으로 사무국과 함께 센터장을 대행하기로 하고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 김광휘 이사장(중앙)

■ (사)씨을여성회 여성회 창립11주년기념과 사랑·생명·평화·나눔 일일차집

5월31일(금, 오후2시~8시) 문화웨딩컨벤션홀 3층에서 (사)씨을여성회 창립11주년을 기념하고 여성인권향상과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사랑·생명·평화·나눔 일일차집을 진행하였다. 성교육강사의 시낭송과 기타연주, 인형극단원 하모니카연주, 다문화가족 베트남팀의 전통무용, 중국팀 노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후원행사는 조억동광주시장, 노철래 국회의원, 소미순시의원, 장형옥 시의원, 김규성광주하남교육장, 유관단체대표, 지역주민들, 회원, 자원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 베트남 전통춤공연(정월에...)

경기도 7월여성주간 기념식

7월 5일(금, 오후2시)성남아트센터에서 경기도 7월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행복한 여성·행복한가족·함께하는 경기도 여성이라는 슬로건에 100인 즉문즉답, 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에 광라분이상임이사, 류복연소장, 김영숙사무국장, 성교육전문강사 임복희, 조형자 선생이 참석하였다.

사무국 연대활동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동

〈경기여성연대〉

- 운영위원회의, 워크샵 참석

1월과 5월 운영위원회의에 광라분이 경기여성연대공동대표가 참석하고, 5월 화성시 소재 광명의 집에서 1박 2일 경기여성연대 회원과 운영위원 워크샵에 광라분이상임이사과 류복연 소장이 참석하였다.

- 3.8세계여성의날 105주년 기념 및 제9회 경기여성대회

3월 30일(토, 오후 2시)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열자!!』라는 슬로건 아래 '빈곤의 여성화 극복', '여성비정규직차별 철폐', '여성의 정치세력화 확대'를 경기지역 여성연대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광라분이 경기여성연대공동대표와 김영숙활동가가 참석하였다.



● 이주여성 공감을 담다 영화만들기와 시사회

7월 19일(금, 오전10시)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다문화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을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이 본 우리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직접 영화로 만들어 자신들이 느낀 차별, 소외, 어려움을 영화로 담았다, 영화시사회는 다문화가족여성들과 광주시청 여성가족과 변효성과장(팀장), 경기도여성가족과, 경기여성연대, 광주여성연대, 광주시민연대, 장형옥시의원, 소병훈민주당위원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영화에 출연한 딩디즈영, 정수빈, 꾸엔, 왕링링 더운 날 수고 많았습니다.



▲ 왼쪽 오점균감독, 왕링링, 딩디즈영, 정수빈과 자녀

● 3월 26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성인지예산교육강사양성과정에 임복희성교육강사와 김영숙활동가가 참석하였다.

〈광주여성연대〉

● 제 2차 정기총회는 2월 20일(수, 오후 4시) 씨울여성회 교육관에서 20명이 참석하여 2012년 사업 및 회계보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받고, 임원은 껍라분이, 정인숙 공동대표는 연임하고 신임공동 대표는 김해수 선생이 선출되었다.

● 광주시의회 의정지킴이단 활동

4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임시회의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김민서, 박경애, 배영숙, 오마제, 윤종설 선생이 참석하였다.

● 7월 여성주간행사

7월 19일 오전 11시 I웨딩컨벤션웨딩홀에서 7월 여성주간행사는 '2014년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여성시대 여성대통령에게 바란다.' '우리지역 여성들의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 여성이 희망하는 정치인, 의제 등 다양한 여성네트워킹을 구성하여 여성의 정치관심과 참여확대가 목적이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젠더센터 허성우교수가 주제발제를 하고 임복희 성교육전문강사, 장형옥 광주시의원, 배기숙 곤지암자원

봉사가위손 회장, 정인숙 광주여성연대공동대표, 조정순 광주시민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월 1회 여성분과위원으로 김영숙 사무국장(여성분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분과사업 진행 및 보고, 하반기 사업을 계획하였다. 또한 실무협의체 회의는 6월13일(목, 오후5시) 광주시중회의실에서 11개분과에서 사업진행 보고 및 지역복지 계획 및 논의에 김영숙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